

일부 부유층, 자녀 대학 장학금·재정보조 받으려고 후견권 악용

미국의 부유층 일부가 대입을 앞둔 자녀의 후견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빈곤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재정보조금을 가로채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대학 상당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시카고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몇 년 전 당시 17살이었던 딸의 후견권을 동업자에게 이전했다. 후견권 이전은 동업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처리됐으며, 어머니와 딸은 얼굴을 비출 필요조차 없었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셈이 된 딸의 소득은 여름철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4천 200 달러가 전부인 것으로 장학금 신청서에 기재됐다. 이들 가족의 실제 소득은 연간 25만 달러가 넘는다. 이 여성의 딸은 한 해 등록금이 6만5천 달러인 서부 지역 사립대에 진학했으며, 매년 4만7천 달러 상당의 장학금과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시카고 교외에 사는 한 10대

가 일리노이대에 제출한 입학신청서와 재정 보조 신청서에 부유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과, 이미 독립해 혼자 생활 중이란 내용이 각각 적힌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일리노이대는 후견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 15명을 찾아냈다. 앤드루 보르스트 일리노이대 학부 입학 담당 국장은 "재정 보조 요건을 맞추려고 부유한 부모가 자녀의 후견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건 중간·저소득 학생이 받을 지원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오퍼튜니티 호딩'(기회 독식·opportunity hoarding)으로 불리는 이런 행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서 후견권이 이전된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 교육부도 일리노이대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전미학비보조관리자협회(NASFAA)의 저스틴 드래거 최고경영자 겸 회장은 "이들은 시스템을 갖고 놓고 있다.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57% "대북 군사행동 지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등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의 60% 가량이 북한의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공격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아시아경제'가 폭스뉴스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폭스뉴스가 지난 21~23일 전국 등록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유무선 랜덤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한 군사행동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5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 49%(반대 37%)의 찬성 비율보다 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해당 조사의 역대 최고치이다. 2017년 1월 찬성 51%(반대 37%)보다도 6%포인트 높다.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인식도 지난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60%가 찬성(반대 27%)해 2006년 7월 62%(반대 31%)와 비슷했다.

또 "4년 전에 비해 미국이 전세계에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미국인

들은 지지 정당에 따라 답변이 확연히 달랐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83%가 '덜 존경받는다'고 답변 반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58%가 '더 존경받는다'고 답했다.

한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낮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OFAC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일을 조선노동당과의 연계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올 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도 관여,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들였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추가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이행의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8월 05일 ~ 8월 11일, 2019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7, 8, 11 일 여자 길일: 5, 6, 9, 10 일

 <p>쥐</p>	<p>순풍에 돛단 적입니다. 짐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로서, 물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일,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건실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고 구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말</p>	<p>중전에 떠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운세가 왕성합니다. 마치 가을철에 풍년을 맞은 모습입니다. 재물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세상만사가 태평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언제까지나 중천에만 머물지 않듯이, 현재의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오래 보존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표소</p>	<p>얼어붙은 땅 위에서 새싹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과 양이 화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자고 말고 뜻을 펼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서슴지 말고 도와주어야 나중에 복록이 되어 돌아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양</p>	<p>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경쟁이 심해지고 혼란이 생기면, 지도자는 강직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 이를 본받아 스스로 자만심을 버리고 넓은 덕(德)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복록이 따를 것입니다. 내부 관리에 충실하고 성심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협력자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곰</p>	<p>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차분하게 내면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나 시험 준비와 같이 차분하게 실력을 쌓는 분야에 종사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여 나타낸 생활을 해 나간다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에 후려움이 있더라도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른 길을 지켜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원숭이</p>	<p>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동료들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란 뜻과 같이 행동하겠으나,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편,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인배의 감언이설에 주의하고 안으로 굳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토끼</p>	<p>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닭</p>	<p>가끔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중이 천리 밖까지 울리지만 소리만 있고 형체는 없듯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벌이면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삼가고 좋은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어 주면 나중에 복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염</p>	<p>작은 일을 도모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에 힘쓰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정신적인 교분을 두텁게 해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미리 알아서 해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매사에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실이 뒤따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개</p>	<p>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무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금의환향하고, 술한 시련을 겪어 온 상황이라면 드디어 뜻을 이루고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돼</p>	<p>지금까지 꾸준히 키워 온 실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세상에 나아가 큰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착수하여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고, 작은 일보다 큰 일에 뜻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온 격입니다. 년 중의 절기로 비유하자면, 해가 점점 길어지고 양기 처음으로 생기는 동지에 해당합니다. 사업은 차차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 소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문서 관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